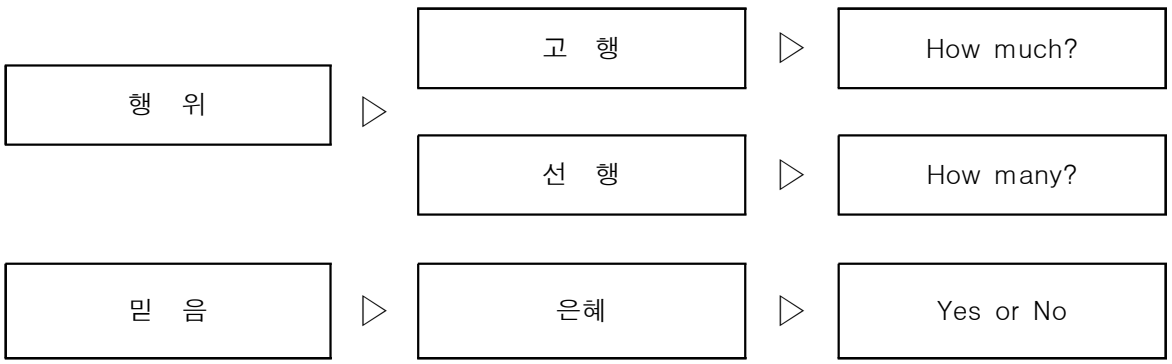
4. Why Faith?

2023.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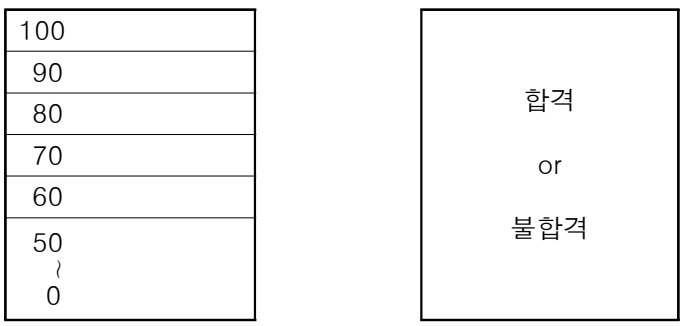
●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대충 살면서 구원만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고층건물에 화재가 난 경우, 사람이 늪에 빠진 경우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불분명합니다.
행위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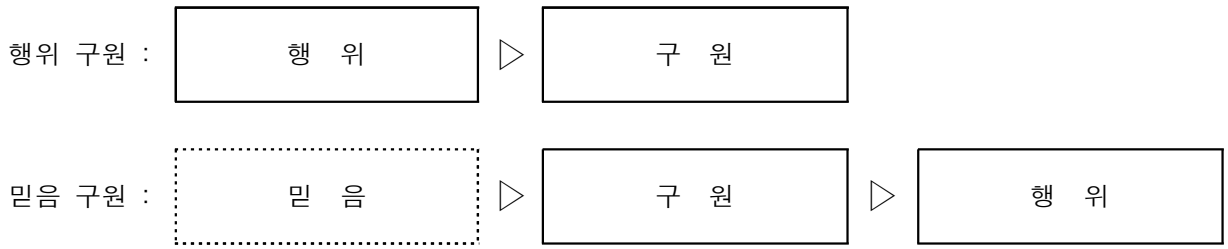
상대평가 - 행위　　절대평가 - 믿음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에 나를 대신하여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 짐을 지고 가시는 할머니를 지나가던 경운기에 태워 드렸더니...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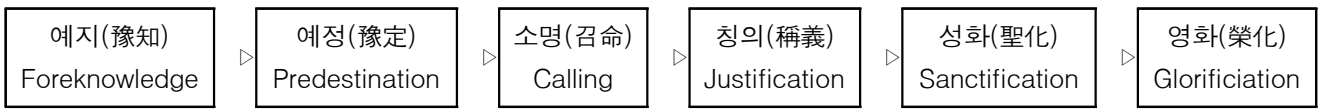
● 왜 믿음만 강조하나요?

신앙의 본질이 행위인지 믿음인지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있어야 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물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잡아보면 행위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구원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위는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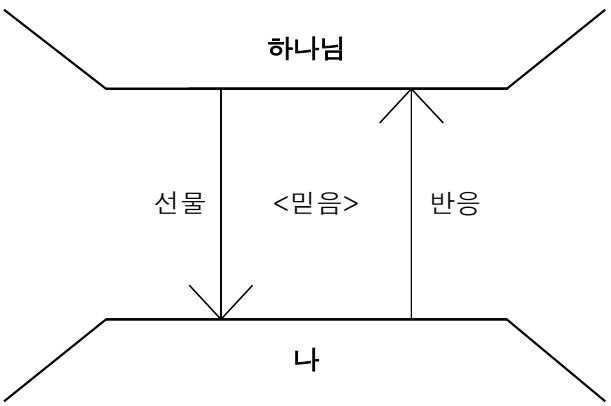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감동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참고로 크리스천의 신앙여정을 다음의 6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마서 8장 29~30절)



●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나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믿을만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기업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